



국립광주박물관이 올해 다문화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겨울! 박물관 이야기'에 참가한 어린이가 자신이 만든 '열두띠 팝업북'을 소개하고 있다.

2016 “엄마! 박물관에서 아트북 만들었어요”

국립광주박물관 ‘겨울! 박물관 이야기’ 프로그램 인기 ... 12간지 배우고 원숭이 판화 체험

예전 박물관은 조용한 전시장에서 눈으로만 감상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립광주박물관은 ‘박물관은 내 친구’, ‘청소년 박물관 꿈길’, ‘도요일! 토요일은 박물관’, ‘박물관에서 꿈꾸는 희망’ 등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

이날 교육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열두띠 아트북’ 만들기 체험. 준비물을 받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모습에서 기대감이 엿보였다. 가위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상만 참여할 수 있어 언니, 오빠를 따라온 유아들은 아쉬워했다.

준비물을 받고 자리로 돌아온 어린이들은 신난 표정과 달리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속지는 종이 가운데를 부채꼴로 접어 만들어야 한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였다. 여기저기서 ‘엄마’를 찾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정성스레 폴을 발라 12간지 설명이 적힌 종이를 속지에 붙이고 ‘나의 새해 다짐’을 써넣었다. 빼빼물 봉투로 거의 그리다시피 표지에 제목을 쓰고 원숭이 그림 도장을 찍어 장식했다.

원숭이 판화체험은 유아들에게 인기가

열두띠 동물 이야기 붙이고

‘나의 새해 다짐’ 써넣어

‘박물관 규방’ 12일까지 모집

18일부터 양모 공예 교육



국립광주박물관

있었다. 꼼꼼히 잉크를 바르고 있는 힘껏 롤러를 굴리는 자세가 제법 진지했다. 판화가 예쁘게 나오자 엄마에게 달려가는 모습에서 아트북 만들기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어느새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은 쥐피지만 토끼를 가장 좋아한다는 김희연(8)양은 “엄마랑 동생이랑 친구 예지랑 같이 왔다”며 “새해에는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고 부모님 말을 잘 들겠다고 썼다”고 말했다.

초등생 딸과 같이 온 학부모 김태균(39)씨는 “맞벌이 때문에 딸이 방학 때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랑만 있었는데 박물관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반차

를 내고 참여했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6일까지 화·금요일마다 계속된다. 참가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를 통해 해야하며 당일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박물관은 천연 양모를 소재로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창작해 보는 ‘박물관 규방’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일반인 25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5월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교육관 체험학습실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양모공예 기원과 펠트원리 기법 등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물벨링, 니들벨링 등 다양한 전통 기법을 체험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각 시간마다 원숭이 열쇠고리, 풍경, 전통 색 활용 컵받침, 주머니(파우치), 꽃과 열매 브로치와 반지, 전통 문양 활용 식탁매트, 가방 만들기 등을 교육한다.

강사는 변은숙 공예가가 나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 예정이다.

교육 참가 희망자들은 오는 12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Fax·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570-7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세희 작가가 말레이시아에서 찍은 사진작품 ‘penang’.

‘이주’ 삶과 이동의 낯선 풍경들

박세희 개인전 ... 4~17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박세희 작가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4일부터 17일까지 ‘migration : 이주’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박작가는 지난해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돼 이번 전시를 열었다.

박씨는 전시주제 ‘이주’ 안에서 삶과 이동에 관한 풍경을 사진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어린시절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이동하는 삶을 살아왔던 경험을 작품에 녹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 경험 안에서 느낀 ‘이주’ 개념을 한발짝 더 발전시킨 작품도 출품했다. 광주, 말레이시아 페낭 등지에서 찍은 폐허를 통해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폐허를 새로운 공간을 맞이하기 위해 버려져야만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한 박씨는 런던예술대학교 캠퍼벨 대학원에 진학하며 사진으로 전공을 배웠다. 지난 2014년 제10회 광주 비엔날레 포트폴리오 공모에 선정, 작품 ‘Vanished Landscape’(상실의 풍경)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예술 페스티벌 ‘뉘블랑쉬(Nuit Blanche)’에 참가하며 유럽무대에 진출했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도서관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정글만리’

도서관정보나루 집계

전국 공공·지역 도서관 회원들이 최근 90일 동안 가장 많이 대출해 읽은 책은 무엇일까.

27일 전국 502개 공공·지역 도서관 회원 1028만여명을 상대로 대출된 장서 약 3470만권을 분석한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에 따르면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 1’(1532회)이 가장 많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글만리’는 2권이 4위, 3권이 7위를 차지했다.

일본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1446회), 스웨덴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1337회)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정유정의 소설 ‘7년의 밤’(1258회), 지난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미움받을 용기’(1284), 프래드릭 배크만의 ‘오베라는 남자’(1045회), 김진명의 소설 ‘글자전쟁’(1020회), 헤민 스타의 ‘뱀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1018회)이 뒤를 이었다. 10권 중 8권이 소설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이달부터 전국 공공·지역 도서관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정보나루’는 공공·지역 도서관 회원들이 최근 90일간 즐겨 읽었던 책을 지역별·연령대별로 제시할 뿐 아니라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합뉴스

갤러리 리채, 제1회 청년 작가 공모

갤러리 리채가 지역작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청년 작가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해까지는 기획초대전을 열며 청년작가들에게 무료로 전시장을 제공했

던 갤러리 리채는 올해부터는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광주·전남 소재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개인전 1회 이상 경력에 있는

45세 이하 지역 연구작가다. 모집 인원은 4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작가는 활동, 경력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한 서류와 작품 등 포트폴리오, 개인전 팸플릿 등을 1일부터 22일까지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창작지원금 200만원과 현수막, 팸플

렛 등 홍보를 제공받는다.

신청 작가 4명은 4·6·9·12월로 나눠 2주간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며 서류 접수 때 전시 가능 기간을 꼭 표기해야한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 후문/북구청 주차장 2분! (정문과후문사이)

4면 올 대리석 / 내부 깔끔

1층 (상가 1칸)
2층~3층 (원룸 10개)
4층 (주택)

☆ 보 5,000만 월 460만 ☆ (용 1억2천)

매가 6억 6천만

010-6670-9800 010-7384-7800

7층 상가건물매매

- ▶ 1층 (커피숍)
- ▶ 2층~5층 (사우나, 주택)
- ▶ 6층~7층 (설계사, 건축사)

※ 은행대비 최고 안정적 상가건물
※ 공실 없음 / 올시설 / 월세 책임보장

(보1억5천/ 용6억)

☆ 월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매가 16억

(7층상가건물, 사우나,커피숍 직영가능하므로 수익률 상승)

010-6834-4800 010-6832-9700